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

-開心寺·普願寺·伽倻寺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ood-block in Buddhist Temples
from Seosan Area, Chungcheong-do

- Focusing on Examples from Gaesimsa Temple(開心寺), Bowonsa Temple(普願寺)
and Gayasa Temple(伽倻寺) -

任潤修 (Im, YoonSoo)**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간행 참여자의 기록과 간행 활동 |
| 2. 지리적 특징 | 4.1 간행 참여자에 대한 기록 |
| 3. 개심사 소장 책판의 형태 분석 | 4.2 주요 인물을 통해 본 간행 활동 |
| 3.1 판의 형태 | 5. 맺음말 |
| 3.2 판면의 순서 | <참고문헌> |

< 초 록 >

충남 서산 개심사에는 총 18종 421판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개심사에서 판각된 책판 2종, 보원사 14종(추정 2종, 강당사(異稱) 2종 포함), 가야사 1종, 간행처 미상 1종으로 대부분이 보원사에서 판각된 책판이다.

개심사의 책판들은 가로로 매우 긴 장방형이며, 휘어지거나 어긋난 판형을 지니고 있다. 이를 빠른 인출을 위하여 공정의 과정을 줄인 것이며, 판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록 책판에는 적합하지 않은 휘어진 나무라도 판각에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면의 내용 순서가 뒤섞여 나타나는 것은 책판을 빠르게 간행하고 판을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판면의 특징은 판각 당시의 상황과 각주의 의식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책판과 간인본을 통해 830명의 간행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사찰에서 간행된 책판에서 같은 간행 참여자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세 사찰의 간행이 각 사찰의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要語: 개심사, 보원사, 가야사, 책판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서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석사(anna90713@naver.com)

접수일: 2018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4일
서지학연구, 제76집, 189-213,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189>)

<ABSTRACT>

Gaesimsa Temple, located at Seosan in Chungcheong-do Province, currently holds a total of 18 types and 421 blocks of wood-blocks, which include 2 type of wood-block engraved in Gaesimsa Temple, 14 kinds from Bowonsa Temple, 1 type from Gayasa Temple and 1 type from an unknown publisher. Most of these wood-blocks were originally engraved in Bowonsa Temple.

The wood-blocks in Gaesimsa Temple are rectangular in shape and are unusually long horizontally. A significant number of them are either warped or misaligned. This is mostly due to the accelerated production process. The variance in the type of woods used for the wood-blocks reveals that some types of trees not usually considered for wood-block printing were also utiliz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In addition, the orders of block surfaces were often mixed up, probably to ensure faster and more efficient publication. These analyses also enable us to read the historical circumstance, and also let us understand the consciousness of the engravers who worked on these wood-blocks.

Examining the 83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as seen in the wood-blocks itself and the published materials, this study analyzed the personnel'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their social status, and also their role conducted in the production of the wood-blocks. In addition,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who overlapped from different Buddhist temples, indicating that these printing activities from each of the three temples were not isolated, but actually integrated and cooperative among each other.

Key words: Gaesimsa Temple(開心寺), Bowonsa Temple(普願寺), Gayasa Temple(伽倻寺),
Wood-block

1. 머리말

사찰은 서적 간행의 한 주체로서 조선의 출판문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승려들이 판각과 인출 및 장책의 기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고, 사찰의 지리적 조건이 책판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위에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작된 책판들은 각 지역의 사찰들에 보관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책판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책판은 인쇄되기 이전의 책의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 1차적 기록물로, 인쇄된 서적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서지학 연구에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되어 학술적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판에 있는 정보는 사찰의 불서 간행에 누가 참여를 하였으며,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형태와 과정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고는 충청남도 서산 개심사에 소장된 책판을 통해서 16세기 서산 지역의 사찰 간행 활동에 주목하여 지역적 단위로서의 사찰 간행의 특징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찰은 간행의 독립적인 주체이지만 그 주변 사찰과의 교류를 통해서 책판 판각에 관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그 관계망에 대한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찰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 불교서지학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사찰의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충청도 권역의 사찰 간행¹⁾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특히 서산 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대한 불교 문화권이며, 책판과 간인본이 다수 현전하고 있어 불교서지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지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남 서산 개심사에는 총 18종 421판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개심사에서 판각된 책판 2종, 보원사 14종(추정 2종, 강당사(異稱) 2종 포함), 가야사 1종, 간행처 미상 1종으로 대부분이 보원사에서 판각된 책판이다. 개심사에 소장된 책판은 대부분이 간행기록을 드러내고 있기에 간행처와 간행시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 간행처가 소재한 지역적 특징과 시기적 특징 등을 분석하면 16세기를 중심으로 서산 소재 사찰에서 불서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책판 제작에 관한 연구를 위해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책판의 전체적인 형태와 판면의 새김 순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심사 소장 책판만의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갖게 된 까닭과 판각 당시의 각수가 어떠한 의식적 흐름을 가지고 책판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1) 윤병태, “충청지방의 인쇄문화 - 16세기까지 -”, 『백제연구』 15권(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4), 151-173. ; 이세열, “忠淸地域 典籍文化에 關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9). ; 송일기, “鷄龍山 岬寺 所藏의 『父母恩重經諺解』 雙鷄寺 經板”, 『불교문화연구』 6(한국불교문화학회, 2005), 123-154.

또한 책판과 간인본을 통해 정리한 830명의 간행 참여자들이 책판 제작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였고,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사찰에서 간행된 책판에서 같은 간행 참여자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세 사찰의 간행이 각 사찰의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2. 지리적 특징

서산은 충청남도 북서부의 태안반도에 있다. 지형적으로는 가야산, 팔봉산, 백화산 등의 큰 산들과 주변의 구릉성 산지가 펼쳐져 있고 가야산 주위로는 이른바 ‘내포’지역으로 충남에서 차령산맥 동남부의 지역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왔다.

‘내포 지역’은 충청남도 예산 일대의 가야산 둘레의 10개현을 가리키며, 아산·당진·면천·홍주·덕산·해미·결성·보령·서산·태안을 포함한 곳이다. ‘내포’라는 지명은 太宗 12년(1412)²⁾부터 『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조선 초기 때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지명으로 보인다.

『擇里志』에서는 “충청도에서는 내포를 제일 좋은 곳으로 삼는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백 리 지점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요, 북쪽은 경기도 해읍과 한 큰 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곧 서해가 쪽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평야를 이루고 평야 안에 또한 큰 포구가 있는데, 由宮津이라 한다. 만조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배를 사용할 수 없다. 남쪽에 떨어져 있는 오서산은 가야산에서 따라온 지맥인데, 이 산 동남을 따라 공주와 통한다. 가야산 둘레의 10현을 총칭하여 내포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포 문화권은 포구를 끼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륙의 선진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관문격이었으며 해산물과 평야를 끼고 있는 넉넉한 경제적 토대 속에서 구축된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내포 지역의 개방성은 불교 문화의 수용과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포 지역의 불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伽倻山 또는 象王山이라는 명칭에 ‘伽耶’,⁴⁾ ‘象’과 같은 어휘들이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불교유적이 산재하고 있다.⁵⁾ 백제 시대의 불교 유적으로는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상, 태안 마애삼존불상, 보령 성주사지,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등이 가야산과 그 인근에 남아있으며, 보원사지에는 고려의 법인국사보승탑비가 남아 있다. 보원사에 입적한 法印國師 坦文은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광종 때에는 국사의 지위를 받았다. 법인국사보승탑비에는 당시 禪敎僧 1,00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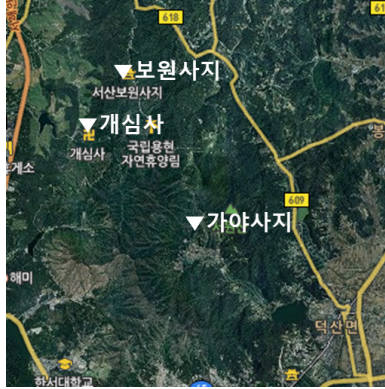
2) 『太宗實錄』 卷24, 12年(1412) 8月 28日, 3번째 기사. “命議政府, 議全羅道米穀陸轉事以聞. 政府上書曰: 忠清道各官田租, 令佃客輸至于內浦 …”

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1』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26.

4) 가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코끼리를 뜻한다.

5) 문화재청, 『開心寺 大雄殿: 修理·實測 報告書』 (대전: 문화재청, 2007), 83.

명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위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⁶⁾



가야산의 위성사진⁷⁾

<그림 1> 위성지도로 본 세 사찰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심사, 보원사, 가야사 이 세 사찰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매우 가깝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개심사는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보원사와 가야사의 경우에는 폐사되어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사찰에서 중수·중창, 불화 제작, 범종의 주조, 책판의 판각과 같은 다양한 佛事가 언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찰의 주 활동 시기를 알 수 있으며, 불사에 참여하는 승려와 속인들을 분석하여 후원세력과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⁸⁾ 서산 지역에서는 이 세 사찰에서 조선시대에 책판 판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을 중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판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각 활동에 있어서 연관성을 지니고 불서 간행 활동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개심사 소장 책판의 형태 분석

불교문화재단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⁹⁾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충남 서산 개심사에는 총 18종 421판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개심사에서 판각된 책판은

6)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검색: 2017.12.16].

7) 네이버 지도(map.naver.com) [검색: 2017.12.16].

8) 이병희, “조선후기 내포지역 불교계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7(역사문화학회, 2004), 8.

9) 문화재청, 불교문화재단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2 (대전,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단연구소, 2015).

2종이며 보원사 14종(추정 2종, 강당사¹⁰⁾ 2종 포함), 가야사 1종, 간행처 미상 1종으로 대부분이 보원사에서 판각된 책판이다.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공주 감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수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책판이 판각되었으며, 이는 지방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가 성행하고 불서 간행이 크게 증대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총 9종의 책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주로 찬술서와 의례 관련 책판이 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이 시기 불서 간행 경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¹⁾

<표 1> 개심사 소장 책판 현황¹²⁾

소장처	책판명	수량(판)	간행처	간행년
개심사 (18종421판)	妙法蓮華經	111	가야산 보원사	1565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51	가야산 보원사	156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32	가야산 보원사	1566
	諸般文	26	가야산 보원사	1566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¹³⁾	23	가야산 보원사	1566
	高峰和尚禪要	13	가야산 보원사	1571
	變相圖	1	가야산 보원사	1571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26	가야산 보원사	1577
	達摩大師血脈論	7	가야산 보원사	1579
	道家論辨车子理惑論	4	가야산 보원사	1580
	達摩大師觀心論 ¹⁴⁾	8	보원사 추정	1580
	天地冥陽水陸雜文	73	가야산 강당사	1581
	誠初心學人文	8	가야산 개심사	1584
	蒙山和尚六道普說	6	가야산 개심사	1584
	五大眞言隨求經	9	가야산 강당사	1604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5	상왕산 가야사	162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¹⁵⁾	7	보원사 추정	[16세기 후반]
護法論	11	미상	[16세기 후반]	

10) 1619년 韓汝賢이 편찬한 『好山錄』에 講堂寺가 普願寺의 새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瑞山邑誌』: 按湖山錄曰, 講堂寺有二名. 一曰, 普願寺, 此則舊名, 一曰, 講堂寺, 此則新名(권상로, 『退耕堂全書』 卷二 (서울: 梨花文化社, 1973), 740).

11)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12) 책판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간본으로는 英祖 17년(1741) 발문이 있는 개심사본 『漆原尹氏族譜』(1741)가 있으며, 가야사에서 간행된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62), 『妙法蓮華經』[諺解](1764), 『梵網經菩薩戒』(1771)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18세기에 개심사와 가야사에서 17세기 초반 이후 단절되었던 불서 간행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야사는 18세기에 더 활발한 간행을 보여주고 있다. 간본에 대한 현황은 [부록]에 있다.

13) 간기가 새겨진 판이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현존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貞1775-4)의 간기에 근거하였다.

본고는 개심사에 소장된 책판을 바탕으로 책판의 형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책판을 통해서 간인 본에서는 알기 어려운 판의 형태나, 판면의 상태 등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유출해 낼 수 있다.

3.1 판의 형태

3.1.1 판의 길이

개심사에 소장된 대부분의 책판은 가로로 매우 긴 장방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판의 형태는 전남 순천 송광사판, 경남 하동 쌍계사 능인암판, 충남 논산 쌍계사판의 일부¹⁶⁾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문 형태의 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심사 소장 18종의 책판 중 13종의 책판 즉, 『妙法蓮華經』, 『道家論辨牟子理惑論』, 『高峰和尚禪要』, 『達磨大師觀心論』, 『達磨大師血脈論』,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諸般文』, 『五大眞言隨求經』, 『誠初心學人文』, 『蒙山和尚六道普說』,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護法論』,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달마대사관심론』 책판(上)과 『호법론』 책판(下)¹⁷⁾

- 14) 책판의 17장에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간기가 새겨져 있어 두 책판이 보원사에서 함께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15) ‘板主乾坤, 衲子天旭, 供養主行者春鶴’이라는 간행 참여자에 대한 기록을 다른 판의 기록과 비교해보았을 때 『묘법연화경』,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 『달마대사관심론』에서도 동일 인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후반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6) 현존 목판으로 살펴보면, 하동 쌍계사 능인암 開刊의 『계초심학인문』(1603), 『선원제전집도서』(1603),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1604), 『대혜보각선사서』(1604), 『묘법연화경(요해)』(1604), 순천 송광사 留板의 『인천안목』(1529), 『천지명양수륙잡문』(1531), 『중경촬요』(1531, 조계산 은적암 開刊), 『계초심학인문(언해)』(1577), 논산 쌍계사 開刊(현재 공주 감사 소장)의 『고봉화상선요』(1565),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1567), 『몽산화상유도보설』(1568), 『월인석보』(1569),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언해)』(1569),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1571), 『북두칠성공양문』(1580) 등에서도 확인된다(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2, 4, 9 참조).

위 책판은 그의 한 예시이다. 일반적으로 책판을 판각할 때 한 장씩 앞뒤 면에 새겨 총 두 장이 인출되도록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책판은 앞뒤 면에 두 장씩 새겨 총 네 장이 인출되도록 새겼다. 빈 면으로 남긴 경우도 있어 그 장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총 네 장씩 새길 수 있도록 판면의 가로 길이가 일반적인 책판의 길이보다 두 배 정도 긴 것이 특징이다. 책판의 가로 길이는 최소 60cm부터 최대 1m까지 다양하다. 『호법론』의 첫 번째 장의 책판은 한 면에 세 장을 동시에 새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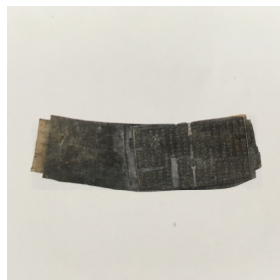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공정의 과정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책판의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목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재를 구하여 판을 다듬는 鍊板 처리를 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바닷물이나 웅덩이 등에 일정 기간 담가 놓는다. 그런 후 썬서 진을 빼고 잘 건조하여 해충과 빠개짐을 방지한다. 다음 단계는 板下本을 마련하여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글씨가 선명해지도록 기름칠을 한 다음 판각을 한다. 판각을 마치면 교정을 한 후 종지와 먹물, 인쇄 도구를 마련하여 인쇄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장이 새겨진 한 판을 만드는 공력보다 한 판에 네 장을 새기는 것이 연판 작업에 있어서 공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또한, 인쇄 과정에서도 한 판면에 두 장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보다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책판 제작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제작 속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책판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2 다양한 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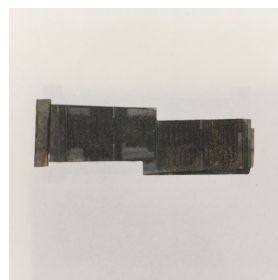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책판의 형태가 직사각형의 네모반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개심사에 소장된 『호법론』과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달마대사혈맥론』,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등의 책판에서 휘어지거나 어긋난 형태의 판형이 나타난다는 점은 개심사 소장 책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V자형



U자형



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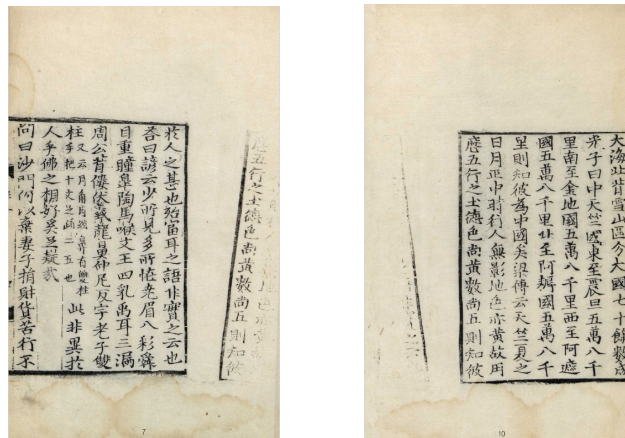
<그림 3> 책판의 다양한 형태¹⁸⁾

17) 출처: 上. 문화재청(www.cha.go.kr, 2017.12.17.), 下.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2015) 발췌.

18) 출처: 左. 수덕사 정보박물관(http://sudeokmuseum.or.kr/, 2017.12.17.), 中·右.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판이 각을 쳐서 꺾인 경우를 ‘V자형’, 굴곡을 진 경우를 ‘U자형’, 어긋나있는 경우를 ‘계단형’으로 구분하였다.¹⁹⁾ 판의 형태가 반듯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연판자의 기술 수준이 미흡해서라기보다 책판을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휘어진 목재라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가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 중에서 책판 제작에 적합한 자재를 구하기가 힘든 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책판 제작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책판을 직접 보아야 확인할 수 있지만, 간혹 인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해 책판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간본이 나타나기도 한다. 190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후쇄본²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7면

10면

<그림 4> 휘어진 판면을 보여주는 인출면²¹⁾

위 인출면은 인쇄할 당시 옆 판면의 일부가 함께 인출되었고 이를 잘라내지 않고 제책한 것이다. 인출면을 통해서 한 판면에 두 면이 판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휘어진 책판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 책판과 비교를 해 본 결과 두 면 사이의 기울기만큼 판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발췌.

19) ‘V자형’, ‘U자형’, ‘계단형’과 같은 용어는 불교문화재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을 따랐다.

2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1266-2).

21)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1266-2).

3.1.3 마구리의 형태

마구리는 책판의 양옆에 끼우는 막대 모양의 틀이다. 마구리는 책판을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의 역할도 하지만 판면이 서로 맞닿아 닳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보관할 때 썩지 않도록 통풍을 잘 되게 하며, 판면의 나무결과는 반대의 결을 이용하여 마구리를 제작하기 때문에 책판이 뒤틀리는 것을 예방한다. 마구리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책판을 보관할 때 판의 순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명과 장차를 적거나 새기게 된다.



<그림 5> 다양한 마구리의 형태²³⁾

마구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마구리에 홈을 파서 그 홈에 판을 맞추어 끼우는 방법이 있으나, 마구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 장치를 추가하기도 한다.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의 경우 나무못을 마구리의 중간에 박아 마구리와 판을 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나>는 나무못을 마구리 중간 지점에 박아 고정했던 흔적을 잘 보여준다.

그림 <다>와 같은 형태의 마구리를 지닌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은 나무못뿐만 아니라 철로 된 장식을 상단과 하단에 고정했다. 판각할 당시에 이 책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공력을 들였으며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84년이라는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불사를 총괄하는 韓化 金荷蓮과 供養을 담당했던 供養主 鍊惠, 鍊板兼刻手 妙淳·戒禪, 刻手 廣惠 또한 시주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책판이 함께 제작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라>처럼 『호법론』, 『천지명양수륙잡문』의 일부 책판에서는 마구리가 제작되지 않은

22) 마구리가 쪼개져 마구리에 고정시킨 판의 모습이 잘 보인다. 장부가 마구리를 관통하여 외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관통형 마구리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2015) 발췌.

판도 나타난다. 마구리를 흠에 맞춰 끼우기 위해서는 흠의 크기에 맞게 모양을 맞추어 깎으나, 일부 판에서 네모난 판형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 종의 판에서도 마구리를 제작한 판과 제작하지 않은 판이 섞여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3.2 판면의 순서

일반적으로 책판의 판면을 판각할 때 한 면에 한 장의 판하본을 붙이고 판각하기 때문에 장차에 따라 인쇄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진다. 개심사판의 경우에는 한 면에 두 장씩 새겨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순서가 차례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책판을 제작할 당시의 공정 순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인본은 인쇄가 이루어진 후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순서에 따라 제작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판각이 이루어진 책판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서 기술자들이 행동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묘법연화경』의 경우에는 판의 순서는 내용에 따라 배열되었지만, 판면에 새겨진 장의 순서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개의 면을 배열하는 방법을 경우의 수대로 늘어놓듯 다양한 배열 방식을 보인다. 표로 배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2> 『묘법연화경』의 판면 순서

앞면/왼쪽	앞면/오른쪽	뒷면/왼쪽	뒷면/오른쪽	책판 수
1	2	3	4	27판
1	2	4	3	16판
1	3	2	4	1판
1	4	2	3	4판
1	4	3	2	4판
2	1	3	4	15판
2	1	4	3	19판
3	1	2	4	2판
4	1	2	3	4판

1-2-3-4 패턴으로 판각된 판은 총 27판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했다. 판하본을 왼쪽부터 차례대로 앞면과 뒷면에 순서대로 붙여 판각한 것이다. 그다음 패턴은 2-1-4-3 패턴으로 그 전의 패턴과는 반대로 판하본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차례대로 붙여 판각한 것이다. 그다음 패턴은 그 두 방향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1-2-4-3 패턴과 2-1-3-4 패턴이 나타난다. 이 네 가지 패턴은 연속성

이 나타나지만, 1-3-2-4, 1-4-2-3, 1-4-3-2, 3-1-2-4, 4-1-2-3 패턴과 같이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각 책판에 붙일 판하본 네 장을 준비하여 그 순서에 상관없이 붙인 후 판각한 결과로 보인다.

앞에 나타나는 패턴들은 하나의 판에서 순서가 서로 섞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의 배열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판 자체의 순서를 의식하여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판의 순서와 상관없이 내용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묘법연화경』 권7에서의 판면의 순서

판의 순서	앞면/왼쪽	앞면/오른쪽	뒷면/왼쪽	뒷면/오른쪽
105	1	2	9	-
106	4	3	18	19
107	8	5	-	-
108	6	7	-	-
109	10	-	11	12
110	13	-	14	-
111	15	-	17	16

위 표는 『묘법연화경』 卷7에서 장의 순서가 어떻게 섞이어 배열되었는지 순서에 따라 1부터 19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판에 세 장이나 두 장을 새긴 경우도 있으며, 판의 앞면에 한 장, 뒷면에 두 장을 새기기도 하였다. 마련된 판하본을 내용의 순서와 관계없이 붙인 후 판각을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련된 판하본을 본문의 순서대로 책판에 붙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순서를 따라 가보면 먼저 책판의 한 면에만 판하본을 붙이다가 뒷면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면이 모자라자 앞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에 각수가 어떠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책판을 제작하고 있었는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판의 배열은 『묘법연화경』 뿐만 아니라 『도가논변모자리혹론』, 『호법론』, 『계초심학인문』, 『고봉화상선요』, 『달마대사관심론』, 『몽산화상유도보설』,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제반문』,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와 같은 다른 책판들에서도 장의 순서가 뒤섞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이 섞이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섞여 매우 불규칙한 경우, 두 번째, 후반부에 불규칙해지는 경우, 세 번째, 전반부에 불규칙하다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특징들을 판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판면에 새겨진 장의 순서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경우	고봉화상선요	...(9·12, 10·11), (13·30·49, 42·40·17) ... (20·44, 29·28), (21·37·36,×), (22·23, 27·26), (24, 48·47·46), (31·25,×), (32·39,×), (38·34·33, 45·43)
	예수시왕생 칠재의찬요	...(1,2), (3,×), (4, 31), (5·37, 16·15), (6·12, 7·8), (9, 10), (19·13, 17), (14,×), (20, 29), (21, 27), (22, 23), (24·28,×), (25, 30), (26, 38), (32,×), (33, 34)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참선도, 육자경-16·매죽현지), (1·9, 4·2), (6·3, 7·5), (10·8, 12·11), (13·14, 15·진언)
후반부에 불규칙한 경우	제반문	...(70·71, 73·72), (74·75, 77·76), 공양문: (1,2), (5, 6), (8·7, 11), (15·9, 10·16), (12, x), (14·13, x)
전반부에 불규칙한 경우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1,5), (2, x), (3,4), (6, x) ... (20, 62), (21, 41), (23,×), (24,×), (25,×), (26,×), (27,×), (28, 29), (30,×), (31, 49) ... (86, 87), (88, 89)

개심사 소장 책판의 경우에는 하나의 판에 여섯 장까지 새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빠른 간행을 위한 것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본문의 순서가 뒤섞여 판각된 것도 책판을 빨리 판각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심사에 소장된 대부분 판은 본문의 내용이 적어 單卷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인본도 1책으로 장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쇄가 이루어진 후에 내용의 순서가 섞이더라도 그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공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미리 마련된 판하본을 본문의 순서에 상관없이 판에 붙여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내용의 순서에 따라 판각된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경우처럼 본문의 내용이 ‘文’, ‘表章’, ‘榜’, ‘疏’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구성 방식을 지니고 있거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처럼 각 편에 ‘第一’, ‘第二’와 같이 숫자를 부여하여 그 순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경우, 『천지명양수륙잡문』처럼 목록이 기재된 판이 따로 수록되어 그 내용의 순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처럼 ‘묵언작법’과 ‘식당작법’ 등 발우공양 의례와 식사의식과 관련한 절차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할 때 섞이지 않도록 더 유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의식 절차나 의식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의식집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가 같은 의식집이고 비슷한 체제를 지녔음에도 판면의 순서가 뒤섞여 제작된 것은 편마다 편제명에 ‘第一’, ‘第二’과 같은 순번이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각수가 함께 판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하본의 순서를 의식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묘법연화경』의 권7의 후반부를 제외한 부분들은 본문 내용의 순서에 따라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전이기 때문에 판각에 더 많은 공력을 들였을 것이라는 점과 권의 구분이 확실하고 다른 책에 비교해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인출 후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의 순서가 뒤섞인 판이 있는가 하면, 각수가 판각할 당시에 어떠한 의도로 판면을 배치하게 되었는지 의식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판도 있다. 먼저 책판의 앞면을 따라 내용의 순서대로 본문이 이어지다가 다시 판의 뒷면으로 돌아가 이어지게 되는 경우나, 판면에 여유 공간을 주고 본문의 순서대로 이어나가다가 후반에 해당하는 장이 앞 판면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5> 책판에 새겨진 본문 순서의 특징

특징	책판명	앞면/왼쪽	앞면/오른쪽	뒷면/왼쪽	뒷면/오른쪽
판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도가논변모자리혹론	2	1	13	12
		3	4	6	5
		7	-	14	15
		8	10	9	11
	몽산화상 육도보설	1	2	5	6
		4	3	7	8
		9	10	18	17
		11	12	15	16
		13	14	20	19
		21	22	23	-
남은 판면을 활용	계초심학인문	1	2	3	4
		5	6	32	7
		8	9	10	11(...)
	오대진언 수구경	1	-	시주질	-
		3	2	-	-
		5	4	7	6(...)

위 표는 판의 내용 순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숫자의 순서대로 판하본을 붙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하본을 판의 앞면에 먼저 붙인 후에 이어 뒤 판면에 붙이거나 앞뒤 판면에 순서대로 잘 이어 붙어다가 갑자기 뒷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 쪽 판면에 끼워 넣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행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의 앞면을 따라 장이 이어지다가 뒷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도가논변모자리혹론』처럼 앞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면을 먼저 채우고 뒷면으로 본문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의 경우에도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의 전면부를 먼저 채운 후 후면으로 이어지며 다시 9~20번째 장이 전면부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남은 판면을 활용하여 마지막 장의 본문을 앞의 판에 끼워 넣은 경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초심학인문』은 마지막 장인 32장이 두 번째 판에 함께 새겨졌으며, 『오대진언수구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장에 새겨지는 시주질이 첫 번째 판에 함께 새겨져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본문의 내용 순서대로 판하본을 붙여 작업을 진행하다가 준비된 판의 수가 부족해서 빈 곳에 끼워 넣으면서 생기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면의 전개방식은 결과적으로 판의 인쇄가 이루어진 후에 내용의 순서에 맞게 다시 재배열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기지만 더 많은 시주자에게 시주를 받아 책판을 빠르게 많이 제작하고, 판을 절약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판면의 흐름을 통해서 각수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판각 당시의 작업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4. 간행 참여자의 기록과 간행 활동

4.1 간행 참여자에 대한 기록

사찰에서의 판각 활동은 불서를 간행하려는 사찰과 이에 시주함으로써 개인의 공덕과 죽은 이의 명복을 기원하려는 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²⁴⁾ 구체적으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발원자와 주관자,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주, 출판에 필요한 능숙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이 삼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²⁵⁾ 이들은 소임에 따라 緣化秩,²⁶⁾ 公役秩, 施主秩에 이름이 기재되는데, 광곽 밖 여백에도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책판을 목록함에 있어 모두를 간행 참여자로 보고 그들이 활동했던 사찰, 역할, 신분, 이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종을 제외한 16종의 책판에서 간행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총 830명의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동일인물이 다른 서적 간행에 참여한 경우, 같은 서적에서도 중복되어 기재되는 경우, 그리고 동명이인의 가능성도 있어 실제 참여 인원수는 그보다 적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개심사에 소장 중인 책판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다른 종의 책판에서 같은 간행참여자들의 이름이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불서 간행이 있을 때마다 시주자와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들이 지속해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각수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사찰 간을 왕래하며 여러 불서를 판각한 것은 조선 전 시기, 전 지역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개심사,

24)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8.

25) 배현숙, “蔚州 雲興寺의 佛經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4(서지학회, 2009. 12), 37.

26) 특별 불사를 수행하는 임시의 연화소에서 불사를 경영하여 시주의 연분으로 구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27) 『한국의 사찰문화재-2014 전국사찰목판일제조사』, 『한국의 사찰문화재-2016 전국사찰목판일제조사』 등에 기재된 목판 사진과 인출본, 소장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28) 김상호(1990), 67.

보원사, 가야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징들을 보이며 이를 통해서 간행 참여자들의 활동 범위와 세 사찰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표 6> 세 사찰 간행 책판에 등장하는 중복 인명

개심사			보원사			가야사		
책명 (간기)	역할	성명	책명 (간기)	역할	성명	책명 (간기)	역할	성명
계초심학인문 (1584.8)	刻手	廣惠	예수시왕생 칠재의찬요 (1577)	刻手	廣惠			
			달마대사혈맥론 (1579)	開刊	廣惠			
몽산화상육도보설 (1584.9)	刻手	廣惠	도가논변 모자리혹론 (1580)	開刊	廣惠			
			천지명양 수륙잡문 (1581)	書寫	廣慧			
몽산화상육도보설	施主	莫德	묘법연화경 (1565)	大施主	莫德			
몽산화상육도보설	施主	尹汗林	묘법연화경 (1565)	大施主	尹閑林			
			예수시왕생 칠재의찬요 (1577)		尹韓林			
몽산화상육도보설	施主	七月	묘법연화경 (1565)	大施主	七月			
몽산화상육도보설	施主	朴順良	천지명양 수륙재의찬요 (1566)	施主	朴順良			
계초심학인문	施主	姜仁同	예수시왕생 칠재의찬요 (1577)	施主	姜仁同			
계초심학인문	施主	銀伊	묘법연화경 (1565)	施主	銀伊			
계초심학인문	幹化	金何連	묘법연화경 (1565)	施主	金何連			
몽산화상육도보설	幹化	金荷蓮	제반문(1566)	施主	金荷蓮			
			달마대사관심론 (1580)		金荷蓮			
			달마대사혈맥론 (1579)	施主	金仁己	성관자재구수 육자선정 (1621)	化主	金仁己

개심사에서 간행된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에 적힌 인명 대부분이 보원사에서 간행된 책판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점은 간행에 있어 두 사찰이 매우 연관 있는 사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원사 『묘법연화경』 간행에 대시주로 참여한 莫德이 20년 후 개심사에서 『몽산화상육도보설』의 간행에 시주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원사 『묘법연화경』과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간행에 시주자로서 참여한 尹閑林은 개심사 『몽산화상육도보설』 간행에도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한자명이 尹韓林, 尹汗林으로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도 시주자 七月, 朴順良, 姜仁同, 銀伊의 인물들이 보원사와 개심사 두 사찰의 간행에 시주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원사에서의 간행이 뜸해지는 시점에 개심사에서 간행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시주자들도 개심사에서 이루어지는 불서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주자의 경우에는 한 사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역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불사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연화자와 시주자의 역할까지도 넘나드는 것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金荷蓮은 보원사에서 시주자로서 『묘법연화경』, 『제반문』, 『달마대사관심론』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개심사에서 『계초심학인문』과 『몽산화상육도보설』의 간화로서 활동하였다. 金仁己 또한 보원사 『달마대사혈맥론』 간행에 시주자로서 참여하였으나 40여 년 후에 가야사에서 간행된 『성관자재구수육자선경』의 化主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원사에서의 판각 활동이 뜸해지는 시점에 개심사와 가야사에서 간행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전 사찰에서 시주자였던 인물이 주 책임자로서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刻手 廣惠와 같이 판각의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기술자인 경우에도 두 곳 이상 사찰에서의 활동이 확인된다. 광혜와 같은 경우에는 각수 또는 書寫者로서 보원사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달마대사혈맥론』, 『도가논변모자리혹론』,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간행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개심사의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 간행에도 각수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판각 작업이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통해 사찰 간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보원사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개심사에서 이루어진 불서 간행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주자였던 김하련이 간화자가 되고 그를 따라서 각수인 광혜도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보원사에서의 불서 간행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개심사 책판 간행 이후에도 강당사라는 이름으로 간행이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원사의 간행 활동이 사그라지는 시점에서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원사는 기존에 이루어진 간행 활동으로 인해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새롭게 간행 활동을 시작하는 사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판각 활동에 있어서 인근 지역 사찰 간에 협력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개심사에서의 간행이 확인되는 16세기 판본은 『계초심학인문』과 『몽산화상육도보설』 2종뿐

이라는 점은 책판 간행의 주체는 각 사찰이 지니면서 실제적인 작업은 의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당시 주 간행처였던 보원사가 책판 간행의 여건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심사의 의뢰를 받아 작업이 이루어졌거나, 제 3의 장소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가야산에 흔적만 남은 백여 개의 폐사지 중 빈발이라고 불리는 능선에 印經寺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실제적인 인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구전²⁹⁾이 내려오고 있어 추후 발굴 작업을 통한 고증이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책판에 새겨진 간행 참여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책판 간행이 이루어질 때 사찰 간에 인력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협력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주요 인물을 통해 본 간행 활동

4.2.1 韓化 金荷蓮·刻手 廣惠의 판각 활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韓化 金荷蓮·刻手 廣惠는 보원사와 개심사 두 사찰의 불서 간행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간행 참여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하련은 보원사에서 『묘법연화경』(1565), 『제반문』(1566), 『달마대사관심론』(1580)의 시주자로 참여를 하였으며 4년 후 개심사에서 간화자로서 『계초심학인문』(1584.8), 『몽산화상육도보설』(1584.9)의 연이은 간행을 책임지게 된다.

보원사에서 시주자로 참여할 당시의 김하련은 시주질에 새겨진 기록으로 보아 일반 시주자들과 다를 것 없이 불서 간행을 위한 시주를 하였으며, 『제반문』에서는 ‘金何連 兩主’라고 기재되어 있어 불서 간행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개심사에서 간화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름 앞에 ‘居士’라는 칭호가 붙게 된다. 거사는 속인으로서 불교를 믿는 사람을 뜻한다. 비록 승려는 아니지만, 개심사 간행에 참여할 당시에는 사찰에서의 간행 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각수의 활동을 살펴보면 세 사찰에서 총 25명의 각수의 활동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각수들이 1~3종의 책판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각수 광혜는 두 곳의 사찰에서 간행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며, 무려 6종의 책판 판각 활동에 참여하였다.

29) 이기웅, 「가야산 인경재와 인경사」, 《굿모닝충청》, 2015년 4월 29일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47>)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

<표 7> 서산지역 각수의 활동

번호	각수명	서명	간행처
1	敬崑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가야사
2	戒禪	계초심학인문	개십사
		몽산화상육도보설	개십사
3	空紙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4	廣口	천지명양수륙잡문	강당사
5	廣惠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보원사
		계초심학인문	개십사
		달마대사혈맥론	보원사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보원사
		몽산화상육도보설	개십사
6	大雲	천지명양수륙잡문	강당사
7	道明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보원사
		천지명양수륙잡문	강당사
8	道眞	제반문	보원사
9	万熙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10	妙敬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보원사
11	妙淳	계초심학인문	개십사
		몽산화상육도보설	개십사
12	宝敬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13	尙玄	천지명양수륙잡문	강당사
14	性安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15	性崑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16	守仁	묘법연화경	보원사
17	崇悟	천지명양수륙잡문의찬요	보원사
18	信峯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보원사
19	玲玉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20	玉淨	묘법연화경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21	太雄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보원사
22	惠鑑	천지명양수륙잡문	강당사
23	惠禪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보원사
		제반문	보원사
		변상도	보원사
24	惠崑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보원사
		천지명양수륙잡문	강당사
25	惠輝	묘법연화경	보원사

각수 광혜는 보원사에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7), 『달마대사혈맥론』(1579), 『도가논변모 자리혹론』(1580), 『친지명양수륙잡문』(1581) 관각에 참여하였으며, 개심사에서는 『계초심학인문』(1584.8), 『몽산화상육도보설』(1584.9) 관각에 참여하였다. 『친지명양수륙잡문』(1581)에서는 書寫者 廣慧로 기록되어 있어 서사자로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 역할과 한자명이 다르지만, 이 시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승려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라 판단할 수 있다. 교정이나 서사를 담당한 인물은 대체로 학식이 뛰어난 승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행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 표를 통해 각수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관각된 책판 제작에 있어서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1565년에 제작된 『묘법연화경』과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의 경우에는 각수 空紙, 万熙, 宝敬, 性安, 性崙, 玲玉, 玉淨이 연이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책판의 제작이 동일 각수 집단에 의해서 관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84년에 제작된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을 통해서도 간화 김하련과 함께하는 각수 집단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수 戒禪, 廣惠, 妙淳가 이에 해당한다. 『계초심학인문』과 『몽산화상육도보설』의 경우에는 판의 수가 적어 많은 각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책판과 형태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마구리에 철로 된 장식을 고정시킨 점이나 유일하게 어미에 화문어미와 각수의 이름을 새겼다는 점에서 보다 공력을 기울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서산 지역에서 활약한 각수에 관한 기록과 흔적은 책판에 새겨진 인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李睟光(1563~1628)의 문집인 『芝峯集』 卷13 「洪陽錄」에 각수 妙淳에게 주는 오언율시가 실려 있어 당시 광혜과 함께 활동했던 묘순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각수 승 묘순에게 주다(贈刻手僧妙淳)>³⁰⁾

가야산의 늙은 상인은	伽倻老上人
재주가 신묘하고 성품도 순박하다오	技妙性還淳
관각은 오늘날 생계 위한 업이요	剞劂今生業
승복은 그대의 허깨비 같은 몸이로다	髡緇爾幻身
공로는 송나라 닥일 깎은 사람이요	功勞刻宋楮
사고는 제나라 바퀴 깎은 사람이로다	思巧斲齊輪
그렇지만 마음을 관조하는 자가	何似觀心者
그대로 본성을 깨치는 것만 하라	居然悟本眞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妙淳은 가야산에서 실력이 뛰어난 각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은 宣祖 41년(1608)부터 光海 1년(1609) 동안 충청남도 홍주목사로 부임하였으며 「홍양록」은 부임 당시에 지은 시문들을 모아놓은 기록이다. 당시에 각수 묘순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야산은 홍주목 관아에서 서북쪽으로 12km가량 떨어진 거리에

30) 李睟光, “洪陽錄,” 『芝峯集』 卷13,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 2017.12.17.]

있는 만큼, 각수의 명성이 홍주목사에게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4.2.2 가야사 승려들의 제지 활동

책판을 제작하는 과정 뒤에는 인쇄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책판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책판에 새겨진 명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인쇄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중에서도 종이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와 물이 필요하다. 가야사 인근에 닳나무가 많았으며 그곳에 있는 탁석천은 넓고 평평한 돌이 많아 가야사 스님들이 이곳에서 종이를 생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7세기 인물인 趙克善(1595~1658)은 충청도 덕산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덕산에서 보낸 인물로 그가 작성한 일기인 『忍齋日錄』과 『治谷日錄』에는 제지 활동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³¹⁾ 그가 종이를 조달받았던 곳이 바로 가야사였다는 점은 가야사에서 종이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가야사에서는 그 지역 사대부가의 의뢰를 직접 받아 종이를 제공하기도 하는 한편 일기가 작성되던 시기에 가야사에서도 불서 간행을 위한 판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제작한 종이들로 불서 간행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光海 13년(1621)을 기점으로 가야사의 승려들과 종이 제작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는데, 닳을 가야사에 주었는데도 미적거리며 종이를 제작하지 않아 소송을 시도하기도 하며 1년이 지나서야 종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³²⁾ 仁祖 1년(1623)에는 가야사의 승려들이 모두 도망가 절이 텅 비게 되자 조극선은 日照庵으로 가 종이를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³³⁾ 종이 만드는 일이 매우 고되기도 하고 임란 이후 승려들의 역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승려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지방 사찰들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아 가야사에도 종이를 제작하는 일에 대해 적지 않은 업무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사와 인근 암자에서 종이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종이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근에 있는 사찰들끼리 간행에 필요한 종이의 공급을 서로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간행 참여자들의 활동 영역을 살펴본 결과 시주질 분석을 통해서 사찰의 판각 활동이

31) 최근 손계영이 조극선의 일기를 바탕으로 17세기 사대부가의 일상에서의 종이 사용과 공급 과정 및 종이에 대한 인식을 밝혀내었다. 사례의 번역은 기존 논문을 따름(손계영,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 -조극선의 일기를 중심으로-,” 『藏書閣』 38(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32) 【1621년 11월 24일】 …以招授楮諸僧 擣練等紙已造而不擣 白紙皆不造 憤甚 … 【1622년 4월 28일】 伽寺僧前秋所授楮 至今不爲畢造 僧呈議送以奴名 囑座首捉因矣 僧太玉以此持白紙二十餘卷來與之到書堂 寄置紙地. 【1622년 10월 12일】 林丈家楮斤 余造紙于伽椰寺 已過周年 每連有故 今月初二日始畢 爲輪送于禾谷.

33) 【1623년 10월 17일】 余以名楮措備事 今將上伽寺 而無奴 未果也 得雲來言 伽寺已空 僧輩皆匿 不可求見 而守玄上人 方在瓦寺也 … 【1628년 2월 9일】 …以契障板造成事 仍載契楮 獨上伽椰山 大寺已久廢 僧在日照庵者 猶造紙.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사료를 통해서 간행 활동에 관한 영향력이 인근 지역의 목사와 사대부가에도 미치고 있었으며, 가야사에서 제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초반 이후 세 사찰의 사세가 기울면서 간행 활동이 중단되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개심사와 가야사에서 간행 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 논고에서는 16세기 충청도 서산 지역의 사찰 판각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적 특징과 판의 형태적 특징, 간행 참여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서산 지역 사찰의 간행 활동을 밝히고 새로운 관점의 책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서산 지역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산 지역이 내포 문화권으로서 대륙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인데 유리한 지역이었으며 이미 백제 때부터 가야산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해 온 특징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가야산에 위치한 개심사, 보원사, 가야사에서 책판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서 불서 간행 활동을 이끌어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형태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책판의 형태와 판면의 순서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간인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측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개심사의 책판들은 가로로 매우 긴 장방형이며, 휘어지거나 어긋난 판형을 지니고 있다. 가로로 매우 긴 장방형의 형태를 지닌 것은 공정의 과정을 줄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판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책판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은 휘어진 나무라도 이를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구리의 형태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역자들에 의해 제작된 마구리의 경우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판면의 내용 순서가 뒤섞여 판각된 책판은 제작할 당시 기술자들의 공정 순서를 유추할 수 있다. 내용이 적고 단순하며 순서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수록 판하본 자체의 순서를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면의 전개 방식은 책판을 빠르게 간행하고 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판면 순서의 독특한 전개는 당시의 상황과 각수의 의식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4장에서는 다른 사찰에서 간행된 책판에서 동일한 간행 참여자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세 사찰의 간행이 각 사찰의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음은 韓化 金荷蓮·刻手 廣惠의 활동과 조극선의 일기에 등장하는 가야사 승려들의 제지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사찰들의 간행 활동이 인근 지역의 관료

와 사대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충청도 서산 지역 사찰의 판각 활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그간 연구에 소홀했던 충청도 지역 사찰의 판각 활동에 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역적 단위를 넓혀 충청도 전역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 과제로 남으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적인 지역 구분을 넘어서 간행 활동에 관한 사찰 간의 협력 관계를 그려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高峰和尚禪要』. 서산 보원사본, 157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達摩大師觀心論』. 서산 보원사본 추정, 158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達摩大師血脈論』. 서산 보원사본 추정, 157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道家論辨牟子理惑論』. 서산 보원사본, 1580(후쇄본, 동국대 도서관 소장).
-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예산 가야사본, 162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서산 보원사본, 1566(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天地冥陽水陸雜文』. 서산 강당사본, 158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서산 보원사본, 156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1』.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 권상로. 『退耕堂全書』 卷二. 서울: 梨花文化社, 1973.
-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문화재청. 『開心寺 大雄殿: 修理·實測 報告書』. 대전: 문화재청, 2007.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1-2. 대전,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6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10. 대전,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 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 배현숙. “蔚州 雲興寺의 佛經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4(서지학회, 2009. 12). 37-83.
- 손계영.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 -조극선의 일기를 중심으로-.” 『藏書閣』 38(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56-89.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 이병희. “조선후기 내포지역 불교계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7(역사문화학회, 2004). 7-40.

書誌學研究 第76輯(2018. 12)

조극선. 『『忍齋日錄』 정서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네이버 지도(map.naver.com).

문화재청(www.cha.go.kr).

수덕사 정보박물관(<http://sudeokmuseum.or.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부록] 개심사·보원사·가야사 간행 전적 목록³⁴⁾

순서	사찰	서명	간행시기	목판본 소장처
1	보원사	妙法蓮華經	明宗20(1565)	개인(전국사찰소장목록집), 원각사 성보박물관
2	보원사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齊儀軌	明宗20(1565)	원각사 성보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3	보원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明宗21(1566)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도서관
4	보원사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明宗21(1566)	국립중앙도서관
5	보원사	諸般文	明宗21(1566)	산기문고 (전국사찰소장목록집)
6	보원사	高峰和尚禪要	宣祖4(1571)	국립중앙도서관
7	보원사	變相圖	宣祖10(1577)	-
8	보원사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宣祖10(1577)	동국대 도서관
9	보원사	達摩大師血脈論	宣祖12(1579)	국립중앙도서관
10	보원사 (추정)	達摩大師觀心論	宣祖13(1580)刻, [1900年代]後刷	동국대 도서관
11	보원사	道家論辨牟子理惑論	宣祖13(1580)	국립중앙도서관, 충남대 도서관, 성균관대 존경각, 규장각, 동국대 도서관, 원각사 성보박물관
12	강당사	天地冥陽水陸雜文	宣祖14(1581)	고려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3	개심사	誠初心學人文	宣祖17(1584)	-
14	개심사	蒙山和尚六道普說	宣祖17(1584)刻, [1900年代]後刷	동국대 도서관
15	보원사 (추정)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16세기 후반]	-
16	[미상]	護法論	[16세기 후반]	-
17	강당사	五大真言隨求經	宣祖37(1604)	-
18	가야사	聖觀自在求修 六字禪定	光海君13(1621)	동국대, 국립중앙도서관
19	개심사	漆原尹氏族譜	英祖17(1741)跋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도서관
20	가야사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英祖38(1762)	日本小倉文庫, 송광사 성보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동국대 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21	가야사	妙法蓮華經[諺解]	英祖40年(1764)	규장각, 동국대 도서관
22	가야사	梵網經菩薩戒	英祖47(1771)	용화사 목담유물관자료실

34) 간인본 목록은 각 도서관의 고서 목록과 문화재관리국, 『전국사찰소장목록집』(1987)에 수록된 「有刊記 佛書木版本 目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